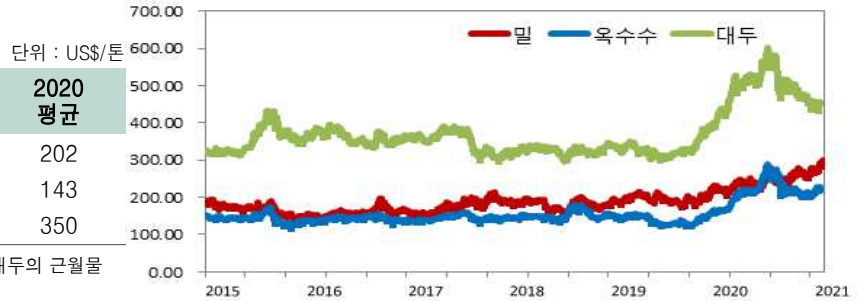


대두 선물가격, 기술 매수와 관련된 대두박 선물의 급등으로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21.11.12)	전일대비	전월평균 ('21.10)	2020 평균
밀	300.19	▲0.6%	274	202
옥수수	227.25	▲1.4%	211	143
대두	457.18	▲1.9%	452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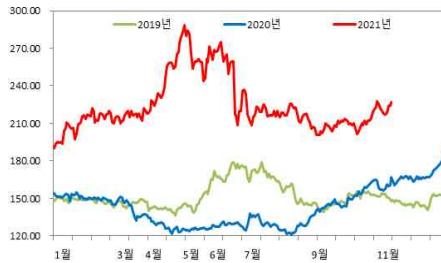
주1.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 (밀 : 12월, 옥수수 : 12월, 대두 : 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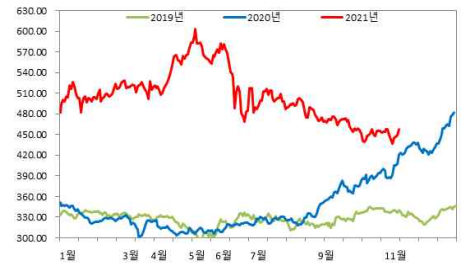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6%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전 세계 현물 곡물 가격 상승과 수출 가능한 밀의 공급 긴축으로 인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농무부는 11월 4일에 마감된 주간 미국산 구작 밀 수출량을 28만 5,900톤, 신작 밀 수출량을 2만 2,500톤으로 발표했다. 이라크는 오는 12월이나 2022년 초에 50만 톤의 밀을 사들이기 위한 국제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무역부 대변인이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4%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에탄올에 대한 수요가 활발하고 밀과 대두박 선물의 파급 강세 속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에 대응하여 옥수수 및 기타 곡물을 구매하는 원자재 펀드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에탄올 이윤이 높아지면서 미국 에탄올 제조업체와 기타 가공업체들은 옥수수 현물 입찰가를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달에 비해 옥수수 선물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미 농무부는 11월 4일에 마감된 주간 옥수수 수출량을 106만 7천 톤으로 발표했다. 분석가들과 무역업자들은 "중국의 옥수수 가격은 기록적인 에너지 가격이 곡물 건조와 물류 비용을 상승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비가 내린 후 수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대두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9%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 매수와 관련된 대두박 선물 급등, 고단백 사료 성분에 대한 활발한 수요와 물류 문제로 인해 상승 마감했다. 미 농무부는 알 수 없는 목적지로 미국산 대두 25만 6,930톤의 판매를 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있다는 소문에 뒤이은 것이다. 미 농무부는 또한 11월 4일 마감된 주간 대두 수출량을 128만 9천 톤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93만 9,300톤을 예약했고, 234만 톤을 선적했다. 주간 대두박 수출량은 27만 8천 톤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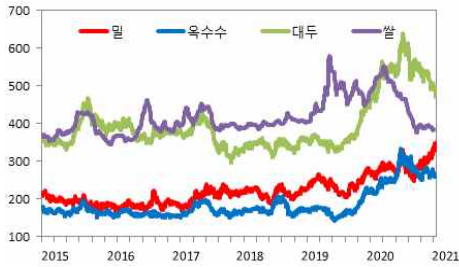
관련동향

- 중국에 대한 추가 판매에 대한 이야기에 불구하고 걸프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시카고 선물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임. 옥수수 베이스는 부진한 해외 수요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밀은 대체로 변동이 없었음.
- 12일 국제유가는 미국 전략비축유 공급 가능성, 미 달러화 강세, 미국 시추기수 증가, 유럽 및 중국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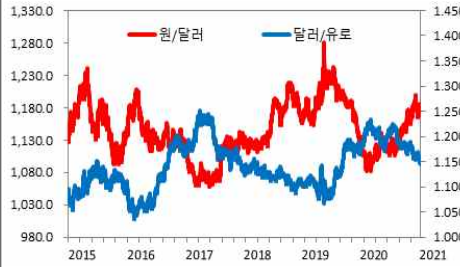
2021. 11. 15

KREI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352	▲1.1%	환율	원/달러	1,184.7	▲0.3%
	옥수수	262	▼0.4%		달러/유로	1.1448	▼0.3%
	대두	484	▲0.4%	국제유가	WTI	80.79	▼1.0%
	쌀	385	-		Dubai	81.57	▼0.3%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근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21.11.11(수출가격), '21.11.12(환율), '21.11.12(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